

## 擇里志의 文意的 고찰

# 自然과 人間의 相關性 표출

鄭 基 浩

(成均館大 造景學科교수)

擇里志는 士大夫가 살 만한 곳은 어디인가라는 命題를 놓고 八道에 관한 著者の 경험과 많은 자료들을 통하여 극히 實學者的 立場에서 서술한 내용을 담고 있다. 거기에 담긴 朝鮮朝 후기의 社會, 文化, 歷史에 관한 내용이나 著者の 견해들은 혹은 社會制度나 時俗의 이해를 위한 자료로써, 혹은 전통적 觀點에서 본 八道の 地理나 實事求是의 生利的 측면의 자료로써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활용되고 있다.

擇里志는 내용면에서 여러 방면에 걸친 풍부한 자료를 담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의 特定的 特定한 研究分野나 考察觀點에 따라서는 四民總論, 八道總論 또는 卜居總論 등 擇里志의 특정부분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그 한 예로써 전통 卜居나 歷史景觀의 觀點에서 취락경관을 다루는 立場에서 볼 때, 擇里志의 卜居總論은 중요한 資料處가 된다. 그 중에서 「地理」나 「山水」는 특히 밀접한 關係를 지니고 있음으로 해서 적지 않게 거론되어 왔거나 이용되어 왔다.

擇里志의 주된 성격은, 신분 및 社會制度에 관한 견해(특히 四民總論), 八道에 관한 人文地理的 高찰(특히 八道總論), 그리고 擇里와 關係된 實事求是의 해석(특히 卜居總論)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들 각 부분의 高찰을 통한 總體的인 結論, 즉 士大夫가 살만한 곳은 어디인가에 대한 著者の 소견은 總論에 집약되어 있다. 總論은 곧 擇里志의 全 내용이 요약정리되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실제의 내용은 특히 四民의 내용과 關係된 社會制度의 부정적인 측면들이 집결되어 있고 그에 대한 하나의 總結은 東西南北 살곳이 없다라는 극히 부정적인 의미가 담긴 말에 이르게 된다.

擇里志가 四民, 八道 및 卜居總論의 전반적인 서술에서 크고 작은 모순적 서술을 보여주고 있듯이, 總論에서의 부정적인 표현에 이어 비약된 새로운 견해를 피력함으로써 끝맺고 있다. 이 비약된 견해는 四民總論이나 八道總論의 誤解의 소지가 있는 것, 비약, 전도 또는 모순된 내용을 담은 서술이 「人心」을 제외한 卜居總論의 서술과 큰 차이를 보이는, 얼핏 이해되지 않는

點과 같은 흐름상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本橋의 취지는 이 부정적으로 보이는 소견이 궁극적으로 극히 긍정적인 견해의 새로운 관점의 제시로써 수용되어야 할 것이란 점을 밝혀 보고자 한 데 있다. 이를 위하여는 먼저 太極圖에 의한 ‘땅 아닌 땅’(非地之地)에 비약된 論旨와 내용해석에 관련된 논의가 필연적으로 따르게 된다. 이러한 논의는 또한 각 부분에 보이는 크고 작은 상호 마찰을 이루는 一見 모순된 서술들이 동시에 합리적으로 설명되어야 한다는 점을 내포하고 있다.

그리하여 擇里志의 근본적인 再考 - 부정적인 부분·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 및 이들과 관련된 눈에 띄는 특징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本橋에서는 이러한 검토의 필요성에 따라 擇里志의 흐름을 파악하고 著者 李重煥의 著述動機 또는 心中意圖를 구체화시켜 봄으로써 그 眞意의 검토를 시도해보았다.

### 擇里志의 일반적 解析과 本의 觀點

擇里志는 보편적으로 人文地理書로 수용되고 있다. 目次別 세부내용에서의 人文地理的 해석이 역사적 사실의 서술을 통한 실증적 자료 및 史料에 의해 전개되는 점도 없지않고 특히 四民總論에서 四民의 발생과 그것의 歷史的 전개과정으로써 설명해 본 것이 擇里志 전체흐름의 중요한 관점이 되고 있음으로 내용적으로는 뚜렷한 史觀에 입각한 史書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李重煥은 士大夫가 살 곳은 어디인가라는 큰 명제를 놓고 풀어나가는 체제를 취함으로써 擇里志가 취하는 주된 방향을 地理書의 性格을 지님을 명백히 하고 있다. 머릿말에 해당하는 四民總論과 맺는 말에 해당하는 總論과 함께, 八道總論과 卜居總論으로 구성된 本論의 내용은 一見 人間(즉, 四民)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갈 것으로 파악될 수도 있다. 그러나 정작 四民總論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사항들은 四民이 고착되어 가는 歷史的 내용에 의거하고 있고

八道總論이나 卜居總論의 「人心」에는 四民에 관한 것이 극히 사회제도상의 병폐에 관한 내용으로 일관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社會制度上의 비평적 서술은 전체의 人文地理書로서의 성격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인가. 鄭杜熙는 “李重煥은 왜 擇里志를 그러한 방식으로 저술하였을까? 일반적으로 이 책을 地理書라고 하지만 地理書를 서술하려는 것이 저자의 근본동기가 아니었음은 지금까지의 설명으로도 잘 알 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의 주장은 곧 歷史家로서의 李重煥을 파악해 보려는 것이며 그것은 또한 擇里志를 歷史書로써 파악하고자 하는 의도로 볼 수 있다. 韋元學은 광역국토계획을 위한 중요한 자료로써 파악하여 擇里志의 내용을 오늘날 地域 및 國土計劃을 위한 내용으로 체계를 세워 본 바가 있다. 이렇듯 다른 전문분야의 관점에서 또는 擇里志를 보는 관점을 달리할 경우 그것은 불가분 그 각각에 해당되는 저술로 수용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여러 갈래의 견해와 해석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 것인가. 李翼成은 擇里志의 성격을 그것이 지니고 있는 많은 명칭으로써 분류해보고 있는데, “「擇里志」란 것은 著者 자신이 붙인 명칭이라 생각되지만, 「八域可居地」란 것은 失勢한 양반으로써 낙향하기를 생각하던 계층이 살기 좋은 곳을 선택하려는 눈으로 보았던 것이며, 「東國山水錄」「震維勝覽」등은 시인묵객이 山水에 우람하려는 생각으로, 「東國總貨錄」은 상업하는 사람이 각처 物産과 교통의 이용관계를 참고하기 위하여, 「形家要覽」은 風水가 좋은 터를 잡기 위하여 읽으면서 명칭을 붙인 것이라고 짐작되는바, 擇里志는 이와같은 다채로운 내용을 구비하였다”고 보고 있다. 이처럼 擇里志는 오늘날 뿐 아니라 예로부터 여러갈래의 관점에 따라 여러가지의 모습과 성격으로 수용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면 李重煥의 著述動機 또는 意中은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보면에 있을 것이다. 跋文에서 그 자신이 밝히기를, “黃山江의 八卦亭에 올라… 우리나라의 山川·人

物·風俗·정치교화의 연혁·정치의 잘 잘못을 논한 것을 가지고 차례를 엮어 기록한 것"이라 하였다. 또한 그는 孔子와 莊子의 경우가 각각 "사실을 가지고(현실에 관한) 자신의 뜻을 표현한 것"과 "실체가 아닌 것을 가지고(이상에 관한) 자기의 뜻을 나타낸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곧 李重煥 자신이 擇里志를 통하여 자기의 뜻을 펴는데 그것에는 「실체인 것」과 「실체가 아닌 것」이 「글 밖의 것」, 즉 擇里志에 글로써 서술되지 않은 숨은 뜻(2차 개념, second intention)을 독자가 생각해 주기를 바라고 있음을 비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擇里志는 우리나라의 山川·人物·風俗·政治에 관한 것을 가지고 엮은 것이기 때문에 각각의 자료들이 극히 實學者的 입장에서 잘 담겨 있다. 그리하여 後世에서 그 내용들이 잘 활용되었고 各各의 觀點에 따라 歷史書·地理書·地域計劃理論...등의 무수한 전문서로 규정되어 온 셈이다. 그 각각의 경우의 어느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를 밝혀보는 것 보다는 一面 이러한 규정들은 현대에 있어서 극히 分化된 전문분야적 편중된 경향에 의한 관찰의 해석은 아닐까 하는 각도에서 관찰될 필요도 있을 것이다.

또한 跋文에서의 黃山江이나 八卦亭이 어디에 있는 어느 정자를 말하는가 하는 것들이 존재 여부를 밝혀보는 것은 차치하고 이들을 굳이 언급한 것은 무슨 연유이며 孔子와 莊子가 취하려 했던 각자의 「뜻을 세우는 과정 또는 방식」을 李重煥 자신의 뜻과 결부시켜 보려는 意圖는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擇里志의 전반적인 해석이 풀려가리라고 생각한다.

그가 품은 意中을 한마디로 단언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일지 모르나 序·跋文의 知友들의 글에 비친 공통된 내용으로써 어느정도 짐작할 수 있을듯 하다. 즉, 사람이 살아가는 이치를 내가 論한다면, 물과 불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는 것이 마땅하다. 다음은 五穀이고 그 다음은 풍속이며 또 다음은 山川景致가 좋아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篔川村墅에 살고 있으나 물은 활두어 바탕 되는 곳에서 길어오고 火木은 십리밖

에서 가져온다. ...대체로 樂土는 못되며, 可取할 점은 오직 江山이 훌륭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士大夫로서 ...이리저리 옮겨서 붙어 살다가 능히 크게 떨치지 못하면 나라를 잃어버린 者와 같게 된다. 그러므로 내가 이모저모 돌아보고 머뭇거리면서 능히 이 篔川을 떠나지 못하는 것이다. "거처한다는 것은 나의 肉身을 편케 하는 것이니, 곧 外形의인 것이니, 마음에 즐거움을 느끼는 것은 이런데에 있지 않는 것이니, 곧 內面的인 것이어서... 진실로 內面과 外形의 分別을 논히 살펴서 빈 배(舟)와 같은 심경을(뛰는다면)... 무슨 살 곳을 반드시 가릴 것인가."

대체로 자신의 跋文과 知友들의 글들을 四民總論의 내용과 함께 살펴볼 때 그는 어떤 모습의 理想郷을 그려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그 擇里志의 내용을 大分하여 그의 意中을 생각해 보면 인간이란 요소, 즉 지극히 本然的인 性情으로서의 人間意識을 통하여 살펴본 山川과 文化의 특성을 그 외형구조로 하여 그에 따른 일정한 내적의미를 理想郷이란 그릇에 담아 놓은 것으로 판단된다.

總論에서 언급한 그의 擇里志에 대한 결론을 통하여 그 이상향의 언저리를 살펴 볼 수 있다. 즉, "士大夫가 때를 만나지 못하면 갈곳은 山林뿐...(그러나) 쉽게 가지도 못한다. 어디로 갈 것인가... 사대부임을 후회하고... 農工商을 부러워한다. 物이 극도에 달하면 되돌아 오는 것인데 진실로 이치가 그러하다. ...동서남북 살 곳이 없다. ...그러면 동서남북이 없고... 사물구별이 확실하지 않는 하나의 太極圖...이것을 땅 아닌 땅이라 한다." 땅 아닌 땅-이것이 士大夫가 살만한 곳에 대한 記의 핵심인 것이다.

太極圖, 火生於木 火發必剋, 物極則 反固其理然(物이 極에 달하면 되돌아 오는 이치)등은 易의 원리와 상관된 개념들이다. 易은 곧 '萬物은 변한다'는 관점에서 시작되며 그 변화는 陰陽에서 비롯된다. 陰陽은 太極에서 비롯된 대비되는 두 기본요소이다. 東西南北이 없고 사물의 구별이 없는 「하나」(太極)가 萬物生成의 기본요소인 陰陽의 「둘」이 되는 것은 萬物을 생성시키는

發動要因이기도 하다. 四民의 구별이 없던 때로부터 士·農工商이 구분된 것은 「하나」가 「둘」이 되는 발단이며 그것은 동시에 四民을 활기있게 해 줄 수 있었던 원동력이기도 하다. 士는 士로서, 農工商은 또한 각각에 적합한 일과 임무로써 수행되는 것은 현실에서의 理想郷이다. 李重煥은 擇里志의 첫머리(四民總論)에 “옛날에는 士大夫란 것이 따로 없고 모두 民이었다”라고 시작하고 있다.

“…舜임금은 堯임금 때에 士大夫였으나, 農工商의 일을 하고도 수치로 여기지 않았다… 혹 士大夫라는 명호로써 農工商을 업신여기고 農工商의 신분으로써 士大夫를 부러워 한다면 이것은 모두 그 근본을 모르는 자이다. …그러나 士大夫라는 명호가 없어지지 않는 것은, 옛 성인의 법을 준수하는 때문이다. 그러므로 士이거나 農工商이거나를 막론하고 士大夫의 行實을 닦는 것이 마땅하다.” 李重煥의 생각은 어디까지나 四民에 관한 理想郷이 前提가 된데에서 시작된다.

### 擇里志 構成과 卜居總論의 검토

#### • 擇里의 構成

四民總論에서 李重煥은 民이 四民으로, 그리고 그 수평적 구조의 四民이 士와 農工商의 수직적 구조의 상하계층으로 고착되어 버림을論했다. 택리지의 서술체계는 이러한 四民에 관한 전제下에 八道에 관한 제반사항과 擇里와 연관된 卜居에 관한 일을 살펴 본 바가 되며, 그로부터 우리는 八道와 卜居를 논하는 동기에는 四民이 上下階層으로 고착된 데서 기인된 문제의식이 깊이 介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擇里에 관한 八道總論 및 卜居總論에서의 검토를 한 연후에도 불구하고 總論에서 밝힌 바와같이 ‘士大夫의 갈 곳이 아무데도 없는 것’은 擇里志의 흐름에서 나타나는 커다란 모순점이 된다. 이 모순된 흐름의 원천은 무엇인가. 總論에서 ‘땅이 아닌 땅(그것이 곧), 士大夫가 살 만한 곳’이라 하게 된 것은 기실은 사회제도상의 악습으로 인한

士大夫階層에 의한 현실적 병폐에 기인하는 것이며 그러한 상황에서는 地理·生利·山水의 좋은 조건이 있다 하더라도 ‘살 만한 곳’으로서의 무의미해진다. 땅이 아닌 땅, 즉 당시의 현실에 대한 하나의 理想郷(특히 四民에 관한 理想郷)을 염두에 둔 것이 八道總論과 卜居總論의 서술에 연관되어 있을 것임을 유추해 보게 된다.

만약 ‘士大夫에 의한 현실적 병폐’라는 강한 論調를 이루는 요인이 배제될 때, 즉 그 점과 관련된 理想的의 狀況을 설정해 볼 때 八道總論이나 卜居總論을 통해 서술하고자 했던 내용은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

八道總論의 서술은 첫째로 「곤륜산-백두산」으로 이어지는 地脈에 의한 朝鮮땅의 서술, 둘째로 八道の 百科事典式 소개, 셋째로 산이 많아 들이 적은 地勢와 단군으로 부터의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한 고려까지의 社會·文化的인 것들을 서술하였고 그에 이어서 八道の 각각을 논한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八道에 대한 것을 한마디로 논한다면, “八道を 통 털어 올바른 곳은 없다. 그 주된 요인은 士大夫계층 자체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이러한 판단의 이유는 卜居總論의 해설으로부터 찾을 수 있다.)

卜居總論은 地理·生利·人心·山水로 구분하여 서술되고 있는 바, 집을 짓는 것은 자손 대대로 이어 갈 토대이며 이를 위해서는 자리를 살펴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 이러한 논지에서 「地理」를 서술하였다. 人倫을 지켜가는 士大夫의 道理를 위한 四禮의 수행은 곧 최소한의 財物을 요하며 그 財物은 또한 땅이 기름진 곳이거나 運送의 편리함을 취할 수 있는 바탕에서 비롯될 것이라는 관점에서 극히 實事求是의 눈으로 「生利」를 말하였고, 살터를 잡음에 있어서 필연적인 요인으로 「人心」을 거론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주로 士大夫의 것을 염두에 두고 제도적인 面을 엄준히 다루면서 “士大夫가 없는 곳을 가려서… 홀로 자신을 착하게” 할 것을論하고 “이와 같은면 人心 또한論할 것이 못된다”는 소견을 폈다.

人心은 卜居를 위한 중요한 요소임은 틀림없으

나 地理가 온전하고 제도에 무리가 없으면 人心은 저절로 그에 따를 밖에 없다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거기에 生利로써 四禮에 보태는 정도로 自重하다면 그로써 人心은 따로이 논할 바가 아닐런지도 모른다. 「人心」의 이러한 소견은 「總論」의 비약된 부분의 근거가 된다. 「山水」에서는 八道の 景觀을 특히 山을 중심으로 살피고 있는데, 그것에는 八道總論에서와 같이 지역별로 나열하는 형식이 아닌, 뚜렷한 관점에 의한 論調를 보이고 있다. 「山水」를 통하여 李重煥은 '10리밖 또는 하나절 거리에 경치가 아름다운 山水가 있는 곳'을 擇居하기에 좋은 곳으로 말해 보았다. 즉, 卜居總論에서 「人心」의 제도상의 문제와 같은 요인을 배제하였을 때, 하나의 理想的 現況을 가정할 경우, '10리밖 즈음에 山水가 있는 언저리의 生利를 취할 만한 곳'이 곧 이상적인 擇居의 장소인 것이다.

#### • 卜居總論의 檢討

本橋序頭에서 밝힌 바와 같이, 擇里志를 우수한 著述로써 인정하기 위해서는 내용상의 문제가 되는 점에 대한 설명이나 해석이 따라야 한다. 이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卜居總論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地理」를 살피는 데에 水口, 들의 형세, 山, 흙의 빛깔, 朝山, 朝水 등의 여섯가지의 조건을 들었고 그로부터 大地의 이치를 논하였는데, 이 여섯 조건이 風水地理에서 전개되는 중요한 요소들이기도 하므로 擇里志를 風水地理思想에 의거한 地理書로 파악되는 경우가 있다. 「地理」를 風水地理의 해석으로써가 아니라, 風水地理를 「地理」의 해석을 위한 媒介要素로 활용한 것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오늘날에는 현대과학의 이론을 통하여 地理를 풀어 볼 수도 있는 것과 같이 당시의 전통사회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회자했던 이론체계중에서 풍수지리의 개념이 꺾혀졌다고 한다면, 그리하여 그것을 통하여 「地理」라고 하는 쉬 파악되기 힘든 대상을 풀어 헤쳐볼 수 있다고 한다면, 즉 그로써 地理의 파악을 위한 중요한 보편타당

한 기본명제를 설정할 수 있다면, 그 이론체계는 方法論으로써 매우 유용한 것이 된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방법론인 풍수지리적 이론체계 자체가 아니라 이를 통하여 도출해 내고자 했던 일정한 내용이 무엇인가에 있다. 「地理」에서 설정한 작업명제를 통하여 擇里志는 무엇을 論하고 있는 것인가. 「生利」를 논한 것은, 「地理」와는 다른 측면에서 즉, 大地의 理致라고 하는 形而上學的인 것이 아닌 實生活의 부분을 거론한 것이다. 극히 實學者로서의 實事求是 또는 물질적인 측면을 강조한 부분이 된다.

택리지를 評함에 있어서 여러 연구들을 대별해 볼 때, 그 하나는 「地理」를 강조한 유형(대체로 지역이나 마을의 공간을 論하는 계통),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바로 이 「生利」를 중요시한 유형(대체로 인문사회계통에서 實學의 측면에서 바라본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렇듯 개별학문분야에서의 극히 뚜렷한(동시에 제한된) 관점을 놓고 볼 때 택리지는 地理를 통한 風水地理書 또는 生利를 논한 實學書로 수용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그러나 「살곳」이 生利만을 위한 곳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으로써 기준해 본다 하더라도 「生利」만 특히 강조되는 것(동시에 「地理」만 강조되는 것)은 편협적인 것이 될 뿐이다. 바로 이 편협성인 「地理」를 통한 형이상학적 측면과 함께 「生利」를 논할 필요성으로 등장하게 하였고 그럼으로써 「地理」에서 취한 바의 중요함이 바로 거기에 있게 되는 것이다.

「人心」에서는 서민의 경우임을 전제하고 八道の 人心을 특징적으로 論하였다. 그러나 士大夫의 경우는 전반적으로 극히 비평적인 論調로 일관되어 있다. 이러한 점이 卜居總論에서 유독 「人心」에서만 지극히 부정적인 관점을 보이는 원인이다. 四民總論에서 보이듯, 士大夫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人倫을 통하여 人事를 취하는 도덕적 부류로서의 본연의 모습이 계급적 상위계층의 모습으로 고착된 것에서 그 병폐의 요인이 생기게 된 것이다. 당시의 八道는

士大夫의 당쟁으로 인한 극심한 社會的 혼란이 있었고 바로 이 「人心」에 해당되는 요인으로 인해 살만한 곳을 생각함에 큰 장애요소가 되고 나아가 「地理」나 「生利」도 아무런 의의도 지니지 못한다는 점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무릇, 天地가 생긴 이래로… 人心이 타락하여… 봉당의 폐단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오늘날의 우리나라 말고 또 있겠는가”라는 「人心」의 極論에 이르는 한탄과 “이를 이대로 두고 바로 잡지 않는다면 장차 어떤 세상이 될 것인가”라고 부연되어야 할 만큼 중대한 요인이 되는 것이다. 卜居를 논함에 있어서 「人心」이 특이한 내용으로써 그리고 極論에 이르는 비평적 견해로써 다루어진 것의 본뜻은 卜居總論에 관한 내용의 흐름상으로부터 보더라도 쉬 드러나지 않는 점이다. 이것을 통하여 그가 의도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山水」는 八道の 山水를 분석·해석한 부분이 되고 그로부터 백두산을 비롯한 무수한 名山들을 論外로 취급한 점에 유의해 볼 필요가 있다. 「山水」에서는 먼저 八道景觀을 논하는 기본관점을 세워서, 첫째, 山脈을 통하여 全國土를 살펴 보면서 ‘中國에 揖하는 형세’와 ‘巨人이 나지 않음’이라는 숙명론을, 둘째, 歷史的 展開事實을 地勢와 관련시킨 서술로써 또 다른 면에서의 숙명론을 세우고 이러한 前提下에서 八道の 景觀을 자신이 보고 들은 바로써 말해 보았다.

山을 중심으로 살펴 본 八道景觀은 뚜렷한 特性別 유형으로 분류된 論點에 의해 분석·평가되고 있는데, 첫째로 금강산-설악산-오대산… 등으로 이어지는 名山 自體의 서술에서 “백두산에서 태백산까지는 한 줄기의 嶺이어서 左右에 봉우리가 없지만 소백산 이하에는 좀 다르다”라는 嶺과 峯에 의한 大別을, 둘째로 소백산 이하에는 맥이 자주 끊어져 峯을 이루며 이렇듯 끊어져 된 처음의 山인 속리산을 비롯한 큰 峯을

이런 名山들을, 셋째로 경상도 유일의 火星인 가야산을 중심으로 전국의 열두곳 名山을 서술함으로써 名山에 관한 총체적 서술을, 그리고 넷째로 살 수는 없으나 名勝으로 일컫는 山이나, 山은 있으나 골이 없는 것 그리고 泉石이 없는 것들은 모두 영구히 집을 두고 살 곳이 아님을 들어 論外로 함을, 다섯째, 바다 북편의 山으로써 한라산을 비롯한 도서들을, 여섯째, 名山 밑이 아니더라도 水石이 기이하거나 山과 이름난 湖水가 어울려 훌륭한 것 그리고 野邑이라도 山水의 경치가 있는 곳에 관한 서술을 하였으며 끝으로, 기타 嶺을 떠나 들판에 내려 앉은 시냇가 마을들을 언급함으로써 전체적으로는 八道の 景觀分析의 관점을 뚜렷이 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나아가 거의 모든 큰 산의 경우에 이르기까지도 水와 조화되지 못한 곳 그리고 계곡에 살 만한 터를 지니지 못한 것은 모두 論外로 할 수 밖에 없다.

결국 여기서의 山水의 논거는 名山을 서술하고 수려한 모습을 설파한 것이 결코 아님을 알 수 있다. 대체로 山水가 수려한 곳은 生利가 박한 경우가 많다는 李重煥의 견해와 관련시켜 보더라도 그의 관점은 진정 ‘살 만한 곳’에 집중되고 있으며 그리하여 「山水」도 ‘살 곳’과 관계되는 범위에서 살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들과 水가 이름없는 山과 관계되어도 무관한 것이고, 바꾸어 말하자면, 들과 水와 조화된 山은 이렇게 이름없는 평범한 山 일 수 밖에는 없을 것이라 論旨일 수 있다.

八道總論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中國大陸으로부터 흘러온 地脈, 八道の 地形이 中國에 揖하는 形勢라는 點 그리고 대체로 山이 많고 들이 적어 사람들이 검소하고 기개가 웅졸하다는 것- 이러한 내용을 들어 성급한 견해를 피력할 우려도 없지 않으나 이러한 點은 결국 「山水」에서 여러 마을과 고을들을 들어가며 강조한 ‘이름없는 산과 조화된 산’이 있는 곳에 관한 내용과 의미 심장하게 연결되고, 「人心」과 관련된 ‘揖하는 形勢’에서 사는 ‘검소하고 웅졸한 사람’의 意味는 곧 禮道·소박함 등의 語義를 지니면서 擇里志의

전반적인 흐름 속에서 파악되어야 할 意圖性을 內包하고 있을 것이다.

### 擇里志의 解釋

擇里志의 모순성을 요약하여 보면, 東西南北 갈 곳이 없다라는 總論에서의 부정적인 견해와 그것이 도출되어 온 論證資料로서의 八道總論과 卜居總論의 內容과의 상충이라 할 수 있다. 李重煥이 밝힌 바와 같이 「글 밖에서 취할 바」가 있으나 그것을 취하지 못하고 글로써 표현된 것만으로 보면 이같은 모순에 빠질 수 밖에 없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고 한다면 李重煥은 擇里志의 내용으로써 글 밖의 숨은 어떤 뜻을 意圖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孔子와 莊子를 두고 언급한 「실제」와 「실체가 아닌 것」의 意味는 「現實」과 「理想」이라는 대비되는 兩面性 그리고 「글로써 나타난 것」과 글을 매개로 하여 펴고자 하는 「글 밖에서 찾아 봐야 할 보이지 않는 뜻」과 같은 外形性과 內面性의 개념이 될 수 있다. 現實과 理想의 양면성을 李重煥 자신의 입장으로써 풀어 볼 때, 實學者로서의 實事求是의 面과 理想家로서의 현실극복의 面의 二重의 입장을 나타내 보인 것일 수도 있다.

모순적 서술에 관한 부분을 간과한다고 하면, 擇里志의 내용을 통해 우리는 극히 實事의이고 담담한 서술태도를 찾아 볼 수 있다. 이는 또한 상당히 실증적이거나 체험적 자료에 의한 것으로 판단될 만한 것이므로 그로부터 傳統社會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들을 풍부하게 취해 왔던 배경이기도 하다. 擇里志에 介在된 모순의 핵이 되는 것은 이미 살펴 본 바와 같이 「人心」 또는 「四民의 구조적 병폐」에 있다. 李重煥은 「실체인 것」을 가지고 이 문제의 해결을 論하지 않았다. 곧 그 문제가 (당시의) 現實的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것이므로 결국 「地理」·「生利」·「山水」의 여하에 관계없이 살만한 곳이 없을 수 밖에 없다. 이렇듯 「실제」의 「현실」로써 해결될 수 없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했는가. 「실체가

아닌 것」으로써의 「理想」은 현실도피 또는 현실극복의 양상을 지닌다. 李重煥을, 이를 수 없는 꿈을 좇는 者로서가 아니라 實學者的 立場의 理想家, 즉 現實可能한 理想을 추구한 者로서 보고, 實事求是로써 추구하고자 했을 理想을 논해 보기 위하여 擇里志를 몇가지의 작업가설로써 살펴보고자 한다.

• 작업가설 ① : 사대부에 의한 제도적 악습(당쟁)이 없는 세상

- 「人心」에서 힘주어 말한 사회적병폐는 李重煥이 「살곳」을 論하는데 큰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만약에 그러한 병폐가 없는 사회가 존재한다면 八道總論에서 否定的으로 언급된 많은 경우, 예로써 嶺南이나 湖南은 嶺南의 「時勢」나 湖南의 「人物·風俗」이 모두 「人心」에 관련된 점임을 유의해 볼 때, 살만한 조건을 잘 갖춘 곳이 된다고 볼 수 있다.

• 작업가설 ② : 山水가 조화를 이룬 곳은 生利를 취할 바탕이 함께 있는 곳

- 名山이라 하더라도 계곡이 터 잡을 만한 땅이 없는 곳이라면 살 곳이 못 된다. 그러므로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名山·名勝의 조건보다도 山水가 조화된 곳이어야 한다. 백두산이 八道の 祖宗山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금강산이 그 수려함에 따를 山이 없을 정도의 名山·名勝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곳들이 사람 살기에 적합하지 못하다면 擇里를 위한 山水를 論함에서는 제외될 수 밖에 없다. 山과 들이 그리고 거기에 水가 어우러져 그것을 바탕으로 生活이 영위될 수 있는 바탕이 갖추어 질 때 사람들은 거기에 깃들고 존속하게 된다. 「山水」에 열거된 十二名山이 아니더라도 아름다운 물과 조화를 이룬 여러마을들은 하나같이 「山水間의 한 곳」에 해당된다.

함경도나 강원도의 대부분이 조악한 경우라 하지만 그것은 「論外로 할 경우」이기 때문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라고 한다면 강원도 例와 같이 「배를 取하여… 生利를 영위할 만한 곳」이 적지 않다. 우리나라의 八道가 전반적으로 山이 많고 또한 나즈막하여 결국은 名勝의 조건을 갖추지 못했고(그곳의 사람들도 관대하거나 풍성하지

못하여 위대한 인물이 나지 않는다), 그 모든 山間에는 자그마한 골짜기나(기암절벽이나 거대한 폭포수 또는 엄청난 물량의 江이 아닌) 가느다란 개천이나 개울이 있을뿐이라고 할 때, 이러한 특성의 八道 山水地勢는 어디에나 士大夫로서 擇居할 만한 山水間의 터를 이루고 있고 그로부터 자연히 西禮를 위한 최소한의 財物을 취할 만한 生里的 바탕을 이룬 곳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擇里志를 통하여 李重煥의 뜻을 파악해 볼 때, 그는 地理書의 형식을 빌어 山川·社會·歷史 등의 모든 것을 서술하였고 그러한 서술을 통하여 파악한 八道の 모든 것은 지극히 소박한 모습으로 비쳐졌을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현실적 장애요소는 사회제도적 병폐, 즉 인위적인 것에 있었다. 이러한 가장 핵심적인 문제성을 지닌 부분과 부분적으로 오해의 소지를 지닌 逆說의 內容의 것들은 이와같은 일정한 가설을 통해 전혀 다른 성격의 것으로 설명해 볼 수 있다.

여기서 작업가설 ①과 관련하여, 理想郷의 설정을 말하자면 當時와 같은 士大夫에 의한 병폐가 없는 時點이나 空間的 背景의 설정을 어떻게 해석·수용해 보아야 할 것인가, 그러한 理想郷의 時·空間의 點이 當時의 그의 뇌리에는 어떤 근거와 어떤 가능성으로써 존재하고 있었을 까라는 점이 검토가 필요하다.

• 작업가설 ③: 理想郷은 實現을 확신할 수 있는 現實의 것」

-李重煥은 그 理想郷을 무릉도원으로 동경한 것이 아니라 먼 훗날의 八道에서 實現이 확실한 것으로 보았을 것이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시대적인 병폐나 장애요소는 있기 마련이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속한 시대나 장소에 회한을 품고 그렇지 않았을 옛날을 동경하거나 먼 훗날의 어떤 상황을 願望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李重煥은 四民의 구별이 없던 始原의 時點 또는 士가 農工商이 구별되기 시작했던, 그러나 士가 벼슬을 두고 돌아와 農工商에 임하여도 수처스러울 필요가 없었던 시대를 돌이켜 보게 된다. 그가 跋文에서論했듯이, “東西南

北 갈 곳이 없다. 東西南北의 區別이 없는 太極圖와 같은 것... 士가 農工商을 부러워 하게 되고 하는 것은 하나의 物이 極에 달하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自然的 理致” 이듯이 그는 이와같은 易思想에 근거한 理想郷을 그려보게 된다. 이렇듯 易의 원리로 미루어 볼 때, 士農工商의 구별이 없는 始原의 시대와 같은 社會는 꼭 돌아올 수 밖에 없다. 그가 黃山江가의 八卦亭에 올라 생각해 본 擇里志는 곧 易思想에 기반을 둔 基本思想을 매우 상징적으로 내보인 것이 된다.

擇里志에서 추구한 理想郷은 孔子의 「실제인 것」과 莊子의 「실체가 아닌 것」(얼핏 허황된 것일지도 모르는 것)을 통하여 그 뜻을 펴는 것과 결부되어 있다. 땅의 理致를論하는 「地理」이거나 實事求是의 「生利」이거나 時俗에 관한 「人心」 또는 주어진 自然條件으로서의 「山水」이거나 그 모두가 「실제인 것」, 實學者的 입장에 부응하는 일들이다. 그는 지극히 객관적인 입장에서 八道の 山水·風俗에 관한 「人心」또는 주어진 自然條件으로써의 「山水」이거나 그 모두가 「실제인 것」, 實學者的 입장에 부응하는 일들이다. 그는 지극히 객관적인 입장에서 八道の 山水·風俗을 관찰하고 이해하려 했다. 實證的 資料를 통하여 엄정한 論理로써 서술하였다. 八道の 山水를 觀한 것에 대한 글로써 「글 밖의 것」을 이루어 놓고 있는 바, 이는 易의 原理를 빌어서 實現確證的인 理想郷에 관한 뜻을 세워본 것이라 할 것이다.

### 要約 및 見解

이상에서 살펴 본 擇里志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① 擇里志는 經驗과 資料를 통해 서술한 實證的인 부분과 一見 크게 비약된 듯 보이는 總論末尾

이 글은 한국조경학회지 제17권 제3호에서 전제한 것이다. <편집자註>



부분을 비롯한 문맥이나 내용의 앞뒤가 통하지 않는 크고 작은 모순성이 내포된 부분으로 되어 있다.

② 이들 대부분은 四民과 관련된 사항이란 점에 공통성이 있고 이들은 압축된 서술로써 總論에 다시 집약되어 있다. 이같은 要素 및 要因들은 本稿의 작업가설로써 살펴 본 바와같이 「人心」과 관련된 四民에 대한 理想的의 條件이 前提될 때 모두 극복될 수 있다.

③ 이러한 理想的의 조건의 인정은 易의 원리로써 매개시켜보면 지극히 論理的이고 合理的으로 무리없이 이루어 질 수 있다(작업가설 ③). 이 易에 관한 것은 總論末尾의 「太極圖」에서 암시된 바 있고 이 부분의 비약된 내용은 易과 관련되어 해석될 사항이다.

④ 전체적인 문제점이 극복될 상황에서는 卜居 總論이 다음과 같이 검토되어진다.

• 「地理」는 특히 擇里志가 風水와 연관지어지는 요인이 되어 왔지만 여기서의 風水의 用語 및 概念은 땅의 理致라는 형이상학적·추상적 대상을 可視的이고 구체적인 形狀으로써 파악할 수 있게한, 활성화를 위한 해석의 수단이었다.

• 「生利」는 四禮를 갖춘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財物을 도모할 필연적 요인이며, 「地理」가 추상적 대상이 아닌 實體的 매체가 됨으로써 그로부터 生利와 地理는 (自然條件에 관한) 相補的 요인이 될 수 있다.

• 「人心」은 비로소 그 내용상의 부정적이고 異質的인 점이 풀려나가게 되어 (人間事에 관한 正當한 요인으로써) 擇里를 위한 諸考察은 「地理」·「生利」·「人心」의 總體的인 체계속에서 가능해 진다.

• 「山水」는 이같은 擇里를 위한 原論的인 틀에 의해 實地에 대한 事例研究의 성격을 보인다.

⑤ 擇里志는 「事實」에 의한 實事求是性이 「事實」이 아닌 것으로서의 理想鄉(땅 아닌 땅)의 것으로 펼쳐질 수 있는 것은 易의 교량적 역할에 있다. 이는 곧 總論에서 비약된 전환의 이론적 근거가 된다.

⑥ 결국 擇里志는 「自然과 人間의 相關性」이란

관점에서 論議될 수 있게 된다. 즉, 이 自然의 어느 곳에 나의 몸을 담을 것인가라는 命題를 놓고 現實과 理想으로써 살펴 본 것이다.

本稿의 동기-擇里志의 本質的 견해를 위한 전체흐름의 검토-는 景觀의 研究를 위한 중요한 자료로써의 擇里志(특히 卜居 總論에서 前提된, 擇里의 命題를 통한 뜻을 세움에 장애가 된 요인을 實事로써 개선·극복하는 것은 당시의 極에 달한 狀況으로 보아 現實的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본다면, 이를 위해서는 어떤 종류의 實事의 方策도 別無效果의 것이 될 뿐이다. 이러한 상황은 「實際가 아닌 것」(理想鄉의 設定)으로써 克服될 수 밖에 없다. 李重煥이 그러본, 易을 바탕으로 한 그 理想鄉은 易의 원리, 「萬物은 변한다」는 관점으로 自然과 人間事를 觀한 그의 山水觀의 表出이라 하겠다. 그 山水觀은 구체적으로, 「山水」를 論한 체계와 그것에 숨겨진 文意로써 표출되고 있다.

「山水」를 論함에는 「地理」·「生利」·「人心」에서 論한 것을 토대로 하여 이들이 은연중에 반영된 체제를 취하고 있다. 外形的으로는 制度에 희생된 자신의 恨이 표출되었을 법한 「擇居할 곳이 없다」라는 總論에서의 所見이 오해의 소지를 지닌채 개재되어 있었으나, 실제로 「山水」를 論함에서 그러한 점은 추호도 보이지 않고 있다. 그것은 곧 내면적으로 강하게 분출되고 있는 文意로써 景觀을 지극히 人間的으로 觀한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